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통곡할 만한 자리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이지만...

박지원은 벼슬이 없었으나 정사인 삼중형 박명원의 군관으로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내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의 생김새는 참신한 샌님과는 한참이나 멀었다고 한다. 우락부락한 외모에 성격까지...

가? 다사다난한 이 시대를 보며 온 세상의 주재이신 하나님은 무어라 하실까? "너희의 하나님이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 청년실업률 20% 돌파... "경제 회복에 우려스러운 신호"

중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실업률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텔레워크를 활용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콕의 봄' 오나...태국 전진당 부상에 '국왕 모독죄' 폐지 주목

지난 14일(현지시간) 태국 총선에서 진보 정당 전진당(MFP)이 돌풍을 일으키며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17명을 포함해 223명 이상을 기소했다.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대학생은 이번 총선에서 전진당 후보로 출마했다.

물가 폭등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97%로 인상 방침

아르헨티나 정부가 전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기준금리 97%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어줄지는 미지수다.



AM 라디오, 안녕... 美 자동차업체, 기능 삭제 잇따라

지난 100년간 매스 미디어의 한 축을 담당한 AM(중파방송) 라디오가 자동차에서 제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아이 3살까진 집에서 일하게" ...日 파격 저출산 정책

저출생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이 육아 시간을 늘리기 위해 텔레워크(재택근무) 활성화...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꺾이지 않는 마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16강 진출이라는 목표...

상을 깨고 포르투갈을 2대 1로 승리하여 16강에 진출합니다. 승리한 한국 선수들은 태극기를 들고 승리의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야 할 것은 마음이고, 불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도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와 같이 말하며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불교 사상을 가지고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와 같이 말하며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불교 사상을 가지고 위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자기 자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가노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기독교적인 글들이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전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감동을 준다고 무턱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yosupbois@gmail.com

퀵복 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단체 재정보고 무료 강좌



퀵복 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단체 재정보고 무료 강좌에서 제임스 구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퀵복온라인을 이용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세금 보고 및 그랜트 신청을 위한 재정보고 무료 강좌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13일(토) 낮 12시에 은혜한

인교회 미라클 센터 MC 310 강의실에서 현장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강좌는 제임스 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가 강사로 참여하여 퀵복 온라인을 활용하여 비영리 단체의 은행 구좌와 연동하여 거래내역이 자동 연결하여 손쉽게 수입과 지

출내역을 정리하고 재정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받은 후 마쳤다. 구 교수는 "퀵복 온라인 버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히 비즈니스 오너가 스스로 장부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비즈니스 오너와 어카운트 담당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위로가 델러스에!

(1면에서 계속)

존 마크 카튼 담임목사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살해'부터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대해 전하며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더 나은 곳,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아이들을, 더 나은 가정을 갈망한다고 믿는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추모 예배와 기도,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교했다.

카튼 목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도입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해야 한다. 그분은 애용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다"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슬픔의 공간에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델러스 총기 난사 범인은 쇼핑몰에 있던 당시 경찰관에게 해 살해했다. AP통신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총격범이 33세 남성인 전직 보안 요원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인 것으로 보도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6일 오후, 델러스 교외 앨런시에 있는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에는 고등학교 졸업과 '프롬'이라고 부르는 졸업 파티 시즌을 앞두고 많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3시 35분쯤 쇼핑몰 앞에 주차한 차량에서 내린 총격범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휘두른 용의자는 범행 당시 극우주의를 상징하는 패치가 달린 조끼 등을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시아가 'RWDS'라는 문구가 적힌 패치가 달린 조끼를 입은 모습이 사건 현장을 담은 영상에 포착됐다. 'Right Wing Death Squad(우익 암살단)'라는 뜻으로, 극우주의자 및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인기 있는 문구다.

용의자는 러시아 기반 SNS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BBC 뉴스가 확인한 결과 하켄크로이츠나 SS(나치 친위대) 문신 사진 등 나치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게시물이 게재돼 있었으며, 장황한 어조로 폭력에 대해 적어 놓은 메시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용의자는 지난달 중순까

지 해당 쇼핑몰을 방문한 사진도 올려졌다.

한편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용의자는 2008년 6월 미 육군에 입대했으나, "신체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초기 임영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3개월 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미국 내 총기 관련 사망 및 부상자 수를 공개적으로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201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성명을 통해 "AR-15 스타일의 공격용 무기와 전술 장비로 무장한 총격범이 쇼핑몰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며 "이런 공격은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 사회는 올해 이미 약 200건의 대형 총격을 겪었고, 1만 4천 명 이상의 시민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미주 연세 개교 138주년 조찬기도회

미주 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는 8일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개홀에서 개교 138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연세 동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요한 목사 사화로 진행된 기도회는 서문준 이사장의 대표기도, 최계희 권사의 성경봉독, 이영선 목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믿음의 본질'(히11: 4)이

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권영대 목사 지휘로 여성합창단의 특별찬양과 미주총동문회 고동호 부회장의 환영사, 남가주동문회 이종한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선 '조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지용덕 목사(연세아카데미 원장)가, 모교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해 이태섭 회장(전 미주총동문회 회장), 연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 천진석 목사(살림교회 담임목사), 한인커뮤니티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백은학 장로(미주성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회장), 우리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 신명균 목사(전 OC시민권자협회 회장)가 각각 기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4)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신을 성장하도록 돕는 세상 속에 빠져 있다. 그들의 정욕과 열정과 탐욕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부인해야 할지, 어떻게 그밖의 것들을 생각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세속적인 자는 세상의 일에 심취되어 천국에 대해서는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없다. 이 마르고 황무한 세상은 천국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먹어치우고 있다.

도, 이런 것이 남아있는 자들의 기세를 그렇게 꺾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다. 그들은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경건한 삶을 계속해 나간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는 자기의 다섯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줄 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렇게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건만, 사람들은 앞서 죽은 친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그들이 죽고 났을 때 그들은 죽은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요한 과업이다. 그 원수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거나 이것은 불필요하게 야만분석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서 사람들이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게 한다. 원수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쾌락을 즐기며 좀 더 세상을 따라 살다가 그 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원수인 마귀는 이와 같은 유혹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잡아두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로 이들을 끌고 간다. 그러나 심판 날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으며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고자 하느냐?"고 부르셨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앞서서 자신들의 비참함에 대해 통곡하게 될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5) 악한 친구의 영향 때문이다 경건한 생활에 대해 비판하는 그들의 삶을 듣고 경건한 삶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가운데서 끌려 나가 지옥에 들어가

(6) 원수 사탄의 공작 때문이다 미묘하고 악한 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회심을 방해하는 것이 이 원수의 가장 중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워크샵 참석 배너.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내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저지 지역 목회자 부부 초청 블레싱의 시간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홍인석 목사)는 현직 목사회원 부부를 대상으로 5월 21일(주일) 오후 6시 하나임교회에서 목회자부부 초청 블레싱의 시간을 연다. 찬양과 간증 및 사모 위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회장 홍인석 목사 201-815-9223

### 뉴욕장로성가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뉴욕장로성가단(단장 전병삼 장로) 제17회 정기연주회가 6월 4일(주일) 오후 6시30분에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연주회로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새생명 선교회, 디나눔하우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단장 전병삼 장로 914-703-0447, 총무 배삼규 장로 201-214-9254

### 영생장학회, 2023년 장학생 선발 신청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소속 영생장학회에서 2023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한다. △Emerging Scholarship 미국 내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예정자, \$2,000 △Timothy Scholarship 대학원 재학중인 Pastor's or Missionary Kids (PK or MK), \$2,000 △Open Scholarship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일반 한인 학생으로서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는 대학생, \$1,000을 전달한다. 신청마감은 6월12일까지

▲문의: 염태선 집사, 송홍창 집사 info@yspcscholarship.org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메시아 여름학교 등록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는 2023년도 메시아 여름학교를 6월 26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5주간 개최한다. 대상은 4세부터 7학년까지 9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등록마감은 5월 26일(금)까지.

▲문의: 나미영 사모, 703-945-2357

###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CHALLENGE 2023”

“CHALLENGE 2023 Youth Retreat”를 주제로 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6월25일(주일)-28일(수)까지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사무엘 목사(한우리교회 EM)를 강사로 개최된다. 대상: 6th - 12th Grade, 등록비: \$ 250

▲문의: 안근준 목사: 646-388-0886, keunjoonan@gmail.com

### ACE 성령집회 “LIVING WATER”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단체 ACE(Adullam Community in the Endtime)에서는 지난 2차례의 준비기도회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집회로 아래와 같이 모인다. 일시: 5월 2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뉴욕 천성장로교회(담임 신두현 목사) 58-30 193rd St, Queens, NY 11365

▲문의: ACE 집회사역위원회 정병길 목사 ace1101next@gmail.com / 989-971-2877

### 뉴저지 교협회관 기금마련 골프대회

뉴저지교협(회장 박근재 목사) 회관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6월 13일(화) 오후12시에 Berkshire Valley Golf Course에서 샷건 방식으로 열린다. 참가비는 \$153(점심, 저녁식사 포함)이며 신청마감은 5월 31일 오후5시이다.

▲문의: 교협회장 박근재 목사 201-647-7766, 대회운영장 홍성철 집사 201-522-5281

## 뉴욕생명열매교회, 설교 글쓰기 세미나

### “들려지지 않는 설교, 설교자 책임”

뉴욕생명열매교회(담임 김경태 목사)가 주최하는 설교 글쓰기 세미나가 5월15일(월)부터 5월16일(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하늘소망교회(담임 장완석 목사)에서 개최됐다.

강사 김도인 목사(아트설교 연구원대표, 글과길 출판사 대표)는 ‘글쓰기에도 철학이 있다. 예수님의 비유법을 통해 설교하라, 설교의 낯선 서론과 들리는 적용, 설교 글쓰기의 10가지 요소, 책 쓰기가 브랜딩 만들기’의 주제로 강의했다. 김도인牧사는 “설교자는 글쟁이여야 한다”며 “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므로 설교에 삶과 영성이 묻어나오니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목사(아트설교연구원부대표, 대코토크연구소 소장)는 ‘설교에 대한 이해, 설교자를 위한 목상과 실제 (창조적

인 목상법), 설교구성의 실제’의 주제로 강의했다. 이재영 목사는 “들려지지 않는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이다.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설교이므로 성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책을 읽으라”고 권했다. 또한 “설교 연습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며 설교 연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짜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시작되므로 설교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도인 목사의 대표작은 ‘설교는 글쓰기다’ ‘설교자,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글쓰기 특강’ 등이 있으며, 이재영 목사 저서로는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동행의 행복’ ‘희망도 습관이다’가 있다.

(홍현숙 기자)



설교 글쓰기 세미나 기념촬영을 했다



목회자 세미나 후 최호섭 목사와 유재명 목사가 기념촬영을 했다

## 작은교회연구소, 유재명 목사 세미나

###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뉴욕영락교회(최호섭 목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를 강

사로 초청하여 5월 5일부터 7일까지 특별부흥성회를 열었다. 8일(월)에는 최호섭 목사가 개소한 한인디아스포라 작은교회연구소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다.

유재명 목사는 처음에는 교회의 절대가치, 교회가 왜 필요하고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를 나누었다. 이어 유 목사는 세미나를 정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마태복음 16:13-20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며 “이렇게 귀한 교회를 목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끊임없이 사명을 가슴에 안고 승리합시다”라고 외쳤다.

이번 세미나는 두번째 초청 세미나로 유재명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주집회가 중단되었다가 이번 뉴욕집회를 시작으로 애틀랜타와 남가주에서 연속 집회를 이어간다. (정리: 김재상 기자)



체육대회 후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제15회 체육대회 뉴욕 우승

###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 주최로 열려

미동부 5개주(뉴욕, 뉴저지, 필라, 메릴랜드, 워싱턴지역) 한인목사회 제15회 체육대회가 5월 15일(월) 워싱턴지역 한인교역자회(회장 김찬영 목사) 주최로 열렸다. 미동부 한인목사회 체육대회는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지난해에 뉴저지에서 재개된 바 있다.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 팀은 장거리인 경우에 하루 앞서 주일 오후 5시에 대형 버스로 출발하여 체육대회가 열리는 인근 호텔에서 1박을 한 후에 체육대회에 참가했으며 참가비 전액을 목사회가 후원했다. 경기는 축구, 배구, 족구, 계주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뉴저지 목사회가 첫 종합우승을 했지만, 올해는 2024년 내년 대회를 호스트하는 뉴욕목사회 팀이 우승했다. 뉴욕목사회 팀은 축구에서 4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으며, 족구도 전승으로 우승했다. 배구는 메릴랜드에게 져서 준우승, 릴레이는 2등을 하여서 총점 28점을 얻어서 종합 우승을 하여 종합 우승기를 가져왔다.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회장 김찬영 목사)가 주관한 대회는 오전 개최예배, 실내운동, 점심은 nZone에서, 오후 야외 운동은 ArrowHead Park에서 열렸으며, 폐회예배 및 시상식은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열렸다.

1부 개최예배는 사회 양경욱 목사(총무), 대표기도 신동영 목사(서기), 대회선포 및 환영사 김찬영 목사, 말씀봉독 박희숙 목사(회계), 말씀 정인량 목사(워싱턴교협 증경회장), 선수선서 박정호 목사(필라목사회 회장), 우승기 반납 홍인석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 축사 심대식 목사(워싱턴교협 회장), 경기운영 안내 문정주 목사(위원장), 축도 김성도 목사(위원장)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폐회예배는 사회 문정주 목사(위원장), 대표기도 이영숙 목사(메릴랜드목사회 회장), 시상식 대회장, 2024년 행사 초청 김홍석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축도 이택래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창단12주년 기념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12주년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6월18일에 링컨센터 친양제

### 공연수익금으로 전세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과 선교사들 지원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윤다이나나 권사)은 5월 11일(목) 오전 11시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에서 창단 1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링컨센터 찬양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에 이은 설명회를 통해 기도 행사위원장 유성종 장로, 무용단 예배무용 시범, 링컨센터 찬양제 홍보영상 상영, 경과보고 단장 윤다이나나 권사와 무용감독 최윤자 권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은 12주년을 맞아 “천지창조”라는 주제로 6월 18일(주일) 오후 6

시에 링컨센터 데이비드 게펜홀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 수익금은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장애인을 위해 사용된다. 즉 뉴욕과 뉴저지미알찬 애선양제를 소개하는 브라질과 방글라데시 선교사들, 튀르키예 지진피해 어린이(GCF), 볼리비아 선교사 등을 돕는다. 공연 목적은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영광과 마음이 하나되어 큰 영광의 찬양제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예배 무용은 몸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강조했다.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은 무용감독 최윤자 권사가 2011년 시작했다. 최 권사는 이에 앞서 1997년에 한국에서 필그림무용선교단을 창단하고 활동을 한 바 있다. 무용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295회의 몸으로 찬양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정리: 김재상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정리: 김재상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KCMUSA,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 '본토 50개 주로 퍼진 한인들의 120년 역사담'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재미한인기독교재단(이하 KCMUSA, 이사장 민종기 목사)이 주최한 미주한인 120주년과 KCMUSA 창립 20주년 기념 '미주한인교회사' 출판감사예배를 5월 9일 오전 11시 옥스포드 팔레스호텔에서 드렸다.

책자의 파트 3 '미 50개 주 최초 교회'에 집필자로 참여한 김동영 목사(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콜롬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은퇴)와 윤성열 목사(뉴멕시코 소재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와 정은표 목사(아이다호 소재 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은퇴)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시종일관 축제의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조명한 목사(미주한인교회사 출판위원장)는 "미

주한인 이민 역사가 벌써 120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의 담임목사들의 세대교체로 인해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며 "누군가는 역사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민 120주년을 맞이하여 미주한인교회를 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명한 목사 사죄로 시작된 출판감사예배는 민종기 목사가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신 32:7-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이민 120 주년을 맞아 한인사회의 역사가 기록된 것과 집필 작업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903년 102명이 왔는데 반수가 믿는 사람들이었으며 미국에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는 커뮤니티센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을 품는 은혜를 얻게 됐다"며 "이 세계에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진 민족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선교의 역사가 완성되는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곳에 모인 한인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석정희 시인이 미주한인교회사 발행인인 허박희민 목사 추모시를 낭송했으며 조명한 목사가 미주한인교회사 출판동기 및 과정설명과 감사말씀을 전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찬희 박사(클레어몬트신학대 명예교수)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소프라노 이영주 사모와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가 서평을 했다. 이날 예배는 김광진 목사(감리교 원로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고 박희민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KPCA 총회장으로 열렸다

### KPCA 총회장으로 진행된 고 박희민 목사 장례식 '끝까지 쓰임 받고,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목회자'

고 박희민 목사 장례예배가 지난 12일(금) 낮 12시 가정의사에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으로 가졌다. 전 총회장 박성규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총회장 박삼근 목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딤후 4:7-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LA 목사중장단(지휘 서문욱 목사)이 조가를 불렀으며, 박성민 목사(뉴호프선교회 대표), 민종기 목사(KCMUSA 신임 이사장), 고 박희민 목사의 장남 박동진 장로가 추모사를 전했다. 또한 고 박희민 목사의 친형 박희소 목사가 유가족을 대표해서 추모객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30분 헐리웃 포레스트 룬에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집례로 하관예배가 열렸다. 한편 총회장 하루 전인 11일(목) 오전 11시에는 고인이 16여년 시무했던 나성영라교회

(박은성 목사)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졌다. 박은성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김정진 목사(기쁜우리교회)의 기도 후에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강준민 목사가 '천국에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딤후 4:6-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박 목사님은 은퇴 후의 삶이 더 아름다운 목회자였으며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웠던 목회자였다고 끝까지 쓰임 받으셨던 목회자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랜 절친이자 후배인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강용훈 목사(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추모사를 했으며 이정욱 장로(기쁜우리교회)가 추모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고 박희민 목사의 친형이자 뉴욕 동부교회 원로인 박희소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정신건강국 '정신건강 및 아테게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좌), 한인정신건강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수잔 정 박사

### LA정신건강국, '정신건강 및 아테게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 개최 한인 정신건강 네비게이션 프로젝트 세미나 열어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은 9일, '코리아타운 정신건강 센터'와 공동으로 '정신건강 및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엘에이 한인타운 6가와 버몬트에 있는 LACDMH 본부에서 열렸으며 한인교 라티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주민 등 약 70명이 참여했다.

상담심리학 교수, 한영호 목사(나눔선교회 대표), 나승렬 목사(Salt 4 Co-Chair, 약속의 교회 담임), 양에스터 박사(미주장신 가정상담학 교수)등이다. 첫 강사로 단에 오른 수잔 정 박사는 '공포와 불안'에 대한 정의와 원인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불안상태가 극도로 심해지는 것이 공황장애이며 공황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것과 사춘기쯤에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불안장애', '선택적 공포증',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불안 장애에 대해 상세히 강의한 뒤 치료와 약물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세미나 후에는 한인정신건강국을 섬기는 스템들과 1대1 상담시간도 갖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도 가졌다. 두 번째 세미나는 19일(금) 10시 동일 장소에서 열린다. <이성자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제28회 학생음악회 '음악회는 지역사회 문화 사역에 큰 교두보 역할 감당'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제28회 학생음악회가 12일(금) 오후 7시30분 지퍼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연주회가 벌써 28회가 되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본교 음악과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주회가 중단된 3년을 제외하고 쉽 없이 14년 동안 매 학기 연주회를 가졌다"며 "학생 연주회가 매년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흥미를 더해왔다. 이번 음악회는 '협주곡 갈라 콘서트(Concerto Gala Concert)'라는 제목으로 협주곡으로만 프로그램을 장식한 데서 그 특이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교 음악과가 매년 이러한 독특한 연주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음악 문화 사역을 섬기는 큰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실로 오늘날 지역 사회의 음악 문화 그리고 교회음악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

음에 더 큰 감사를 갖게 된다. 본 대학의 음악학과가 이처럼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향한 다양하고, 독특하고 중요한 사역자들을 계속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미국 영화음악의 거장으로 오늘날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존 윌리엄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화 '윈들러리스트'를 시작으로 바 이올린 3대 협주곡 중 하나인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우리에게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첼로 협주곡의 대표작인 것 중 하나인 프랑크 작곡가 팔로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으로 가장 대표적인 베토벤의 5번 피아노협주곡 '황제',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그리고 보컬이 어우러지는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로 마무리 되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28회 학생음악회에서 공연이 마친후 전문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28회 학생음악회에서 공연이 마친후 전문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
생명의전화(원장: 바다윗 목사)는 한인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상담봉사원 훈련세미나를 오는 6월20일부터 미주평안교회에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소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지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과 상담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문의: (213)480-0691

은혜한인교회 고 김광신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감사예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고 김광신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감사예배가 25일(목) 오후 7시 친교실에서 열린다.
▲ 문의: (562)355-3088

주님의영광교회 유재명 목사 초청부흥집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유재명 목사(안산빛나교회 담임) 초청 부흥집회를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라는 주제로 갖는다. 일정은 19일(금) 오후 7시30분, 20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30분, 21일(주일) 오전 8시, 10시30분, 오후 1시
▲ 문의: (213)749-6700

동요부르기대회
미주동요사랑회(회장 조현주) 주최 제18회 동요부르기대회가 20일(토) 오후 1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23)899-9353, (213)820-6226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창립42주년 감사주일예배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창립42주년 감사주일예배가 21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장로, 권사 추임예배는 3부 예배시간에 갖는다.
▲ 문의: (972)258-0991

가정의 달 가정 회복 세미나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자녀와의 소통법'과 '중독의 원인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가정의 달 가정 회복 세미나를 21일(주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캐롤튼 캠퍼스 비전 채플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이태후 목사(필라델피아 North Community Church)
▲문의: 노정배 목사 (682)597-5543

선한청지기교회 2023 봄 청지기 말씀축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2023 봄 청지기 말씀축제가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말씀축제의 강사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사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9일(금) 오후 8시, 20일(토) 오전 6시, 오후 8시, 21일(주일) 1-3부 예배이다.
▲ 문의: (626)913-6611

오대식 목사 초청 부흥집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는 오대식 목사 초청 부흥집회를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 문의: (858)278-3210



제 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

###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제 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개최 'Called to Be Free (자유의 부르심)' 6월19일 - 21일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주최하는 제 5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Called to Be Free (자유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6월19일(월)부터 21일(수) 오후까지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에서 진행된다.
본 수련회는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2016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진행됐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연기되었다가 올해 다시 개최하게 됐다.
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스템진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 시기에 영적 도전을 주는 수련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상황, 학생부족, 교사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며 남가주 교회들을 섬기고자 연합수련회를 초교파로 개최하게 됐다"고 말한다.
본 수련회 등록 마감은 5월 26일(금)까지이며 참가대상은 한인 중고등부 학생(6-12학년, 2023년 8월 기준)이며 선착순 100명. 단 교회당 등록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한다. 신청은 나성순복음교회 웹사이트(www.lafgc.com)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문 광고의 QR코드를 사용해 등록하면 된다. 참가비 무료.
자세한 것은 951-928-4415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 백석대 혁신융합학부, '아프리카 아동돕기' 모금액 굿네이버스 기부

#### 모금활동을 교과목으로 운영, 사회 문제 탐구의 기회 제공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혁신융합학부 소셜비즈니스융합전공 재학생 20명이 굿네이버스 충청본부에 135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백석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행사는 환경오염 관련 배출량은

없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식수 부족 등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 모금했으며, 2023년 1학기 전공과목인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혁신융합학부 조성우 교수는

“2015년 네팔 대지진 참사를 시작으로 대학은 ‘모금활동’을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모금을 기획한 혁신융합학부 소셜비즈니스전공 4학년 김주환(27)씨는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기후위기에 직면한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 모금을 해보기로 했다”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백석대가 2015년부터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금활동은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품 지원 △6.25 참전용사를 위한 생계비 지원 △실종아동찾기 △산난방비 취약계층 돕기 등이며 약 1200만원을 사회구조 단체에 기부했다.



### 교회는 디지털로, 예배당은 지역사회 공간으로 '하이브리드' 하라

#### 한국기독교학회·장신대, 뉴노멀시대 목회 세미나 개최

엔데믹 시대 목회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교회가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교회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동력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를 떠올리면 된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접목할 인프라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두루 활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곳에 장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두 영역 모두 진정성있게 돌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살핀다.

하이브리드 목회의 필요성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변화된 성도들의 기호에서도 발견된다. 미국의 바나그룹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MZ세

대의 약 40%가 코로나 이후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형태의 예배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서울 소망교회(김경진 목사)는 목회에 하이브리드를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는 2021년 12월 교회면 된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접목할 인프라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두루 활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곳에 장소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두 영역 모두 진정성있게 돌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살핀다.

소망교회 온라인사역실장 조성실 목사는 “온라인 지구 사역을 펼쳐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목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장애인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등 하이브리드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하이브리드 교회 소그룹의 핵심으로 '교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뤄주는 것을 꼽았다. 특히 교회 내 다음 세대들을 소그룹에 초대할 때 참여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교회 내 다음 세대들을 소그룹에 초대할 때 참여 의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하이브리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로 기존 교회 공간을 사회적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는 흥성 결성감리교회(송경섭 목사), 교회 주방 공간을 1인 가구를 위한 소셜 다이닝에 활용하는 서울 강서구 사랑의교회(최석진 목사), 지자체와 함께 50·60대 남성들을 위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생활 지원사업'을 벌이는 서울 관악구 친구들교회(배홍일 목사) 등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 사마리안퍼스코리아, 한국기독교실업인회 MOU체결

#### 긴급재난대응 후원, 사회공헌·복음 전도 활동 등에 공동 협력기로

기독교 국제구호개발기구 사마리안퍼스코리아(크리스 위크스 대표)가 16일 한국기독교실업인회(한국CBMC·김영구 중앙회장)와 업무협약(자진)을 맺고 긴급재난대응 후원 등 사회공헌·복음 전도 활동에 공동 협력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향후 기부 및 봉사 활동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전략적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대응 후원 활동뿐만 아니라 연 1회 사마리안퍼스코리아가 진행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CC) 선물상자'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양 기관의 협력 선교사역에 관한 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크리스 위크스 대표는 “사마리안퍼스가 국제 재난 대응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CBMC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파트너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기관이 시너지를 발휘해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준비해나갈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복 한국CBMC 대외협력 위원장은 “지구촌 곳곳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재난당한 곳을 찾아다니며 실질적인 구호·봉사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안퍼스의 사역에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찾아 도움을 준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명이다. CBMC

가 전도서 11장 1절을 올해 주제 말씀으로 삼은 것처럼 CBMC 회원들이 사마리안퍼스 코리아와 협력해 지구촌 곳곳의 재난당한 곳에 자신의 떡을 던지자는, 복음과 예수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을 둔 크리스천 사업가 모임이다. 사마리안퍼스코리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사마리안퍼스(회장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한국 지부다.



### 50년의 '선교행진' 내년 한국서 4차 로잔대회 열린다

####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한국교회의 협력 요청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로잔대회가 내년 회년을 맞아 한국에서 4차 대회로 열린다. 로잔운동은 89년 2차 대회(마닐라)와 2010년 3차 대회

(케이프타운)을 통해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한 선교 신학을 구축하며 '선교행진'의 역사를 써왔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복음주

의자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되고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로잔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위원장 유기성 목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서울 샬롱홀에서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교단 지도자 모임을 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를 요청했다. 대회는 '교회가 그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라'(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는 주제로 내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준비위는 “222개국에서 선발된 5000명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참석자 5000여명, 운영진 1000명 등 1만5000여명이 모이는 대회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인 이재

훈 은누리교회 목사는 로잔대회의 취지에 대해 “로잔대회가 회년을 맞아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그동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로잔운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일어났다”며 “국제로잔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과거 대회와 달리 한국교회가 아시아 교회들과 협력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준비위는 첫날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성경강해와 900개 소그룹 토의, 25개 이슈 그룹 토론, 5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대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7일간 성경강해가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이슈 그룹에서는 인공지능(AI), 미전도종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6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연대해 진행된다.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폐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튀르키예 지진피해 현장은 그 어떤 재난 지역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하였다. 튀르키예 정부가 유일하게 허락한 개신교회당 안디옥교회의 무너진 잔해는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처참한 주위의 환경과 똑같이 무너진 잔해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두번의 강력한 지진은 단 21초만에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마치 바닷가 모래위에 성을 쌓다가 물이 들어오면 무너져버린 흔적을 바라보아야 하듯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거나, 심히 파손되어 사람들은 대피하고 빈 건물들만 쓸쓸하게 늘어서 있었다. 만일에 주위의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십자가를 단 안디옥교회의 건물만 무사했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위의 모든 건물처럼 안디옥교회당도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다.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모슬렘 가옥들이나 기독교 교회당이나 상가나 할 것 없이 오래되고 약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무너지고, 최근 강화된 건축규정을 지켜 강하게 지어진 건물들만 일부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당 위층에서 거주하던 사역자 가정들 주님은 일년 전에 이사를 나오게 하셔서 온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나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선교사 가정도 일반 가정과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야 하며, 계절에 필요한 옷가지들 입어야 하고, 사역을 하다가 쉴 수 있는 안전한 주택이 필요하고, 자녀들은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때로 선교사는 이런 모든 것이 필요 없이 희생만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바란다. 안바울 사역자 가정은 10년이 넘게 겨울이면 난방이 잘 안되는 춥고 불편한 오래된 교회당 건물에 거주하

였다. 그들은 일년 전에 큰 결단을 하여 가까운 곳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어렵고 힘들어도 재정도 절약할 수 있게 교회 건물에서 살자는 남편과 너무 춥고 힘들어 이사를 하고 싶다는 아내의 대화를 상상해 보라. 마치 선교지에서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믿음이 약한 부인사역자의 모습이었겠나. 결국 집을 이사하고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 편하게 살고 있지나

함께 떠오르게 된다. 그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유형교회의 환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유형의 교회가 무너져버린 환경 가운데서 매주 폐허가 된 교회당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바울사역자와 몇명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 많은 타지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만한 교회당의 재건축은 이곳에서 아직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십 만 채 이상

고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한다. 단순한 목양이 아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성도 가정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기회에 더 좋은 직업을 창출하고 재해복구 현장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건설과 수송, 자재공급 등 전문분야에서 도

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이것은 비자의 문제도 있고, 공개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지지만 뿌려진 씨앗들이 자랄 수 있도록 거두어들이는 공동체로의 모임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일은 아니다. 전도를 하고 성도의 삶에 변화를 보기까지 심년이상을 완전히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고 목회를 해온 사역자는 말한다. 환경이 마음껏 복음을 제시할 수 도 없는 곳에서 단순한 복음제시 자체도 엄청난 일이지만, 구도자를 찾아내서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눈물의 양육을 위해 삶을 드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부모모하리 만지 과감한 단기선교로 잘 알려진 단체에서 가장 많은 젊은 사역자들을 그곳에 파송하고 사역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전도 노력 이후에 교회로 세워지는 예가 없다

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 공동거주 시설을 만들려는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다. 흩어진 성도들이 들어와 함께 지내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이다. 여기에는 타종교인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한다고 한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거주자들은 농업에 종사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튼 기존의 성도들을 모으려는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최소한 같은 나라에서 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무슨 소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 때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지역, 사역자의 숫자가 모든 현지 성도의 숫자보다 많았던 나라, 이제 조금 현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 모습을 밖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교회의 사역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버린 튀르키예의 아픈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이해하고 돕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중장기 복구의 기간에도 우리의 관심을 함께 기울이자. 교회당의 재건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마음을 함께 하며 현장의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자. 폐허 속에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나누기를 기대하며 폐허 속에 피어나는 소망을 바라본다.

dr.yongcho@gmail.com



않는지, 자주 만나는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 가정들은 더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생각하며 새로운 거주지가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였을지 모른다. 후원하는 교회에서 혹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후원자가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지 않도록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미리 현실적이고 적당한 생활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해 줘야한다.

교회당을 재건하는 것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야 한다. 대부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교회는 교회당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어떤 교회라는 이미지는 그 교회당이

의 집이 완전히 부서졌고, 이십만채 이상에서 거주할 수 없는 이재민이 생겼다. 거의 모든 도시가 비어 있다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텐트들과 임시막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고, 재건할 계획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교회당의 재건은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전기와 물과 같이 성도들이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은 근처의 세 도시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멀리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안바울 사역자가 힘을 잃지 않

을 수 있는 평신도 전문인들과 사업가들이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안바울 사역자는 이미 체류비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형의 교회를 세우는 노력은 함께 해야 한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수고를 한 사람은 그동안 삶을 바쳐 목회를 해온 사역자 자신이지만, 누군가가 이미 뿌렸던 씨앗들이 모여서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제 지진으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일도 다른 사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튀르키예에는 많은 한인 사역자들이 있으나 막상 교회를 맡아 목회를

고 한다. 단순한 복음전도의 기회를 가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이후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모이는 사역을 위한 화려하지 않지만, 뼈를 깎고 눈물의 강을 건너는 노력이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이다.

지진피해 상황은 이제 긴급구조와 구호의 단계를 벗어나 복구의 단계로 내딛고 있다. 흩어져가는 성도들 뿐 아니라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위한 중장기 거주센터를 계획하고 있다. 초기에는 텐트를 가설하고 머물고 있다가 조금 더 튼튼한 컨테이너 주거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보다 더 오래 사용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26강(신명기 1-9장) 모세의 1차 설교를 중심으로 (4)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신 8:1).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하심입니다(신 8:2,16).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며 그들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도록 하심이었습다(신 8:3).

광야에서의 삶은 절대로 낙

낙함,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신 8:4,5).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광야'는 '애굽'보다 나은 곳이어야 합니다. 신분이 '바로 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세상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히 '광야'보다 '애굽'이 좋은 곳이었습다. 그와 같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나안'은 정말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신 8:7-9). 세상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실 땅이기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에서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늘어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신 8:10-14).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신 8:17).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신 8:15,16,18).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멸망시키셨던 민족들 같이 그들도 멸망시킬 것입니다(신 8:19,20).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강대한 나라들,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누구도 당하기 힘든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 사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합니다(신 9:1-3).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들의 공의도 그들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입니다(신 9:4-6,13).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사건들을 '송아지 우상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끄집어내며 되새겨 줍니다(신 9:7-10:5).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여 왔습다(신 9:24). 이때 모세는 '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신 9:27)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와같이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면 멸하실 일밖에는 없지만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시 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어야만하는 우리 대신 종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 신코 펴기 우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본 교회에서 함께 지내며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가운데 SEED 선교 단체의 아프리카&유럽지역 선교대회와 미국 방문 등 4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우간다로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미국에서도 안타까워하시며 반겨주시고, 우간다에 돌아와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반갑다고 달려와 안아주니 기쁘고, 과분한 대접을 받게 하셔서 송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격하게 반기는 한편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규칙과 신앙 그리고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 반가워하는 정도가 덜한 것 같아 속으로 미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떠나는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고, 오고가는 여정에서 나이드 숨길 수 없어 결코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을 자주 타실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새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부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가 없는 동안에도 학교가 무사히 잘 운영되도록 지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저희가 떠난 후의 여행연습이랄까요...? 요즘 우간다는 우기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거의 매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공고 지역에는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학교 내 곳곳에 빗물이 내려가며 파여서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있지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설치한 보도블록 덕분에 학생들의 등하교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 다행입니다.

### 학교소식

지난주 5월 4일, First Term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3주간의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기 중 2명의 학생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큰 탈없이 마무리됨을 감사드립니다. 2월 마지막주에는 학교 설립자이신 안정숙 선교사 소천 6주기 예배가 있었고,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저희 학교 자랑스러운 축제의 주인공인 미스 골든베리



콘테스트가 학부모님을 모시고 코비드 이후 처음으로 생활리에 치러졌습니다. 우간다와 전체 아프리카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널리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 설립자를 기억하며 예배드림

고학년 학생들 미술 프로젝트로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 벽을 내어 주었습니다. 우기로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간다의 주, 부식재료와 풍성한 과일을 주제로 대형 벽화(?)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오기 전, 교회사무실에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와서 한번 한번 걸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으로 도와주신 KCPC와 건강한 파송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말시험을 마치고 며칠간은 학년별 운동시합으로 방학을 준비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합 전 기

### 선교사소식

펜데믹으로 모든 행사가 없어졌다가 저희는 처음으로 외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철저한 경건의 실천과 해외선교에 앞장서 220여 명을 선교사로 파송 한 모라비안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저희도 작은 공동체로 생활하는 같은 입장에서 도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개인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며 기도편지에 소식을 알렸더니 동참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받은 분들이 계셔서 second term부터는 정기적으로 secondary school 장학생을 선

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금을 적립하려 합니다. 점차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첫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의 여행 중에도 안보해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3 주간의 브레이크 기간에도 골든베리스쿨의 모든 지체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새 학기 준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3. 6월 15일-30일, KCQ 단기 선교팀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023년 5월 7일,  
우간다에서 안정근 & 정미향 선교사 올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남아시아 MY국

▲ 종족명  
마부리 나가 종족

▲ 인구  
약 10,000명(인도 나가랜드 주 마부리 나가 종족 포함)

▲ 종교  
기독교 90%

▲ 기타  
공용어 문맹률 30%(종족어 문맹률 50%)

▲ 프로젝트 소개  
2003년 종족어 습득을 시작하여 2013년에 신약 성경 번역이 완료되었고 2018년 4월에 출판되었다. 번역 과정 중 작업한 사전도 출판되었고, 현재 완성된 구약 성경 초역본의 자문 위원 점검을 진행하며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출판된 신약 성경과 사전을 배포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기본 문해 교육과 성경 읽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종족어로 된 최초 약보가 있는 찬송가도 출판되었다. 번역된 성경을 바탕으로 오디오 성경도 제작하여 성경 읽기 운동에 활력을 더하기를 바라고 있다.

▲ 기도제목  
1. 출판된 신약 성경을 통해 개인과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도록  
2. 완성된 구약 성경 초역본이 자문 위원 점검을 마치고 출판되고, 출판 전에 종족어 철자 표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3. 아직 번역이 필요한 나가 종족들에게도 각 종족어로 말씀이 번역되는 길들이 열리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 2023학년도 Zoom 여름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 학년도 줌 여름특강**을 실시합니다

### PC 710 Crisis Management of Ministers (목회자의 위기관리)

- 담당교수 : 이관직박사 (전 총신대 신대원 목회상담학 교수, Ph. D)
- 기간 : 2023년 6월 12-14, 19-21일, 오후 7시-9시30분



**이관직박사**  
(전 총신대 신대원 목회상담학 교수, 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상담목사, Ph.D.)

저서  
『기독교상담으로 본 잠언』(익투스)  
『개혁주의 목회상담학』(대서)  
『성경으로 본 기독교상담』(지혜와 사랑)

### ST 713 Our Neighboring Theologies (우리 이웃의 신학들)

- 담당교수 :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기간 : 2023년 7월 10-12, 17-19일, 오후 7시-9시30분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나눔과 섬김)』, 『광장의 신학』(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탐구』(하나), 『성령의 위로와 교회』(이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SFC),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SFC),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SFC), 『전환기의 개혁신학』(이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SFC 출판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확장 개정판 (CCP) 등 20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djkim3333@gmail.com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일 시: 2023년 5월 23일(화)-5월 26일(금)  
장 소: LaGuardia Plaza Hotel/퀸즈장로교회

예배 축제 위로 계승

# 환영합니다 welcome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하라  
(엡:23)

CHURCH, **BE FILLED** WITH **JESUS** CHRIST EPHESIANS 1:2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

THE 47th GENERAL ASSEMBLY OF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